

# 다니엘서 - 번호 107

예언적 서사: 여로보암에서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옛 길의 회복

Jeff Pippenger

2024-02-29

1844년,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밀러주의 운동에서 이탈하여, 여로보암의 북방 열 지파가 유다 남왕국과 분리될 때 그가 거짓 예배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예언적 정체성을 '바벨론의 딸'로 취했다. 벨엘('하나님의 집'/교회라는 뜻)과 단('심판'/국가라는 뜻)에 각각 세운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는, 미국을 특징짓는 교회와 국가의 거짓된 체제를 예표했다. 여로보암의 거짓된 교회와 국가 체제의 모든 요소는 아론의 반역에서 드러난 바로 그 동일한 구조를 본뒀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거짓 예배 체제는 아론의 거짓 예배 체제의 형상이었다.

여로보암의 거짓 체제는 개신교가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분리되어 교황권의 로마 짐승의 딸, 또는 그 형상이 되었을 때 지지한 예배 체제를 상징했다. 여로보암의 거짓 체제가 막 수립되던 바로 그때,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그의 제단과 거짓 예배 체제에 맞섰다. 1844년에, 로마의 딸로 표현되는 예배 체제를 확립해 가기 시작한 배도한 개신교의 역할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점에, 밀러파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안식일을 인정했으며, 그리하여 로마의 권위의 표—일요일 예배—를 계속 준수하기로 선택한 로마의 딸들에게 예언적인 책망을 나타냈다.

여로보암에 맞섰던 유다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언을 선포했다.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다윗의 집에 이름하여 요시야라 하는 아들이 태어나리라.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드릴 것이요, 사람들의 뼈가 네 위에서 불사라지리라." 그날에 그가 표징을 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표징은 이것이라. 보라,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열왕기상 13:2, 3.

그 예언에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언에서 어떤 단어나 구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표지로서, 둘째 천사가 도래하고 개신교가 무너져 바벨론의 딸이 되었던 해인 1844년을 가리킨다. 동시에 예언자는 표징을 제시했는데, 이는 1844년에 밀러주의자들이 안식일의 표징을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여로보암이 그 예언자를 위협하자 그의 손이 마비되었는데, 이는 이마나 손에 강요되는 바벨론의 표를 가리키며, 그것을 받으면 사람이 영원토록 영적으로 불구가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상 우리는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밝힌 예언을 살펴본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가 너 위에서 향을 사르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기초'를 뜻하며, 여로보암이 자기의 거짓 예배 체계를 출범시킨 사건으로 예표된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세워진 재림교회의 기초들을 상징한다. 여로보암이 도입한 그 거짓 예배

체계에 대하여 요시야는 그 거짓 예배를 주도한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즉위식에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벳엘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가 벳엘의 거짓 선지자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는 1844년 이후에 1863년의 반역으로 대표되는 배도한 개신교의 교리와 거짓 예언적 방법론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먹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임할 죽음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세워졌다. 1863년에 반역한 자들의 임종의 자리는 벳엘의 거짓 선지자의 임종의 자리와 같을 것이다. 배도한 개신교의 임종의 자리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였는데, 그때 그들, 곧 하나님의 옛 선민은 지나쳐 버림을 받았고 로마의 딸들이 되었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의 임종의 자리 또한 1840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힘센 천사가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한 그 날과,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는 큰 지진의 때 사이가 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되었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그 땅(미국)과 교회(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서 행해진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였다. 2001년 9월 11일, 에스겔서의 네 가지 가증함으로 대표되는 조상들의 죄가 그때 시작된 인침 과정에서 현진리의 시험들이 되었다.

1863년의 시험은 1863년에 거절되었던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대표되는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시험은 늦은 비의 안식을 찾기 위해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 1888년의 시험은 존스와 와그너 장로들이 가져온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

1856년에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기별이 밀러주의 운동 가운데 처음 임했고, 그것은 '일곱 때'에 대한 더 큰 빛과 함께 왔지만, 라오디게아 기별의 처방들로 표현된 그 경험과 예언적 역사에 대한 기별은 1863년에 거절되었다. 그 경험은 '모습'의 환상(mareh)과 '예언적 역사'의 환상(chazon)으로 표현되었고, 이 둘 모두가 거절되었다. 그 두 환상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고, 열아홉 해 뒤에 둘 다 거절되었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끝을 시작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에, 1863년과 1888년에 있었던 반역과 관련된 시험이 다시금 사람들을 시험하는 진리가 되었는데, 이는 둘 다 예레미야의 옛 길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늦은 비 메시지가 임했고, 1919년의 시험도 또한 임했는데, 1919년에 예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짓 복음이 가짜 '평안과 안전' 메시지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8장의 강한 천사가 강림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가 성취되었으며,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째 음성'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바가 아니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는 큰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임할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칠 일에 관하여 나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엎으실 때에 그곳의 큰 건물들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 뿐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강하신 능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임하면서 늦은 비가 뿌리기 시작했고, 하박국 2장에 표상된 "예언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 논쟁은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론과, 거짓된 늦은 비 기별과 참된 늦은 비 기별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그 논쟁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임하여 현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시작을 밝히고, 하나님의 다른 양 떼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끝난다. 둘째 음성의 임함은 14만 4천인의 인침의 역사에 끝을 표시하는데, 이는 네 번째 가증한 일로 표상된다. 그 네 번째 가증한 일은 다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앞에서 태양에게 절하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를 대표한다.

천사의 강림과 1844년의 닫힌 문 사이에 있던 배교한 개신교의 임종은, 천사의 강림과 임박한 일요일 법령의 닫힌 문 사이에 있을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임종을 예표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뱀엘의 거짓 선지자와 같은 무덤에 묻혔고, 요시아 왕은 개혁을 시작할 때 바로 그 무덤 앞에 섰다. '하나님의 기초들'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요시아 왕의 개혁은, 하나님께서 2001년 9월 11일에 말세의 백성을 기초들로 돌아가게 이끌기 시작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의 개혁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착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요시아 왕 제십팔년에 왕이 아살리아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집으로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온 은을 계산하여 합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은을 여호와의 집을 감독하는 공사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고,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집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라. 곧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고, 또 집을 수리하도록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에 대하여는 그들과 회계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 다시 아뢰어 이르되, 신하들이 성전에서 발견된 은을 모아 여호와의 집을 감독하는 공사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를 향하여 타오른 여호와의 진노가 크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하 22:3-13.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힘센 천사가 강림하여 마지막 때 그의 백성을 옛 길로 돌아가게 한 2001년 9월 11일을 가리킨다. 그 강림은 1840년 8월 11일에 같은 천사가 강림한 사건으로 예표되어 있었다. 두 차례의 강림은 모두 이슬람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나타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 이슬람의 시간 예언의

성취를 미리 지적하고 그 예측을 공표한 일과 관련해 이름이 연관되는 역사적 인물은 요시야였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8장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두 번의 강림 모두에서 “요시야”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요시야 리치는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된 이슬람에 관한 메시지를 제시했으며, 2001년 9월 11일에는 여로보암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한 선지자가 제시했던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그 천사가 자신의 말세 백성을 불순종한 선지자와 여로보암의 대결이 성취에 이르렀던 기초가 되는 역사로 되돌리셨을 때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성경의 증언은 장차 올 한 요시야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밝혔고, 불순종한 선지자에 의해 예표된 역사가 1844년에 반복되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그의 예언이 다시 한 번 예언적 내러티브 속에 놓이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그의 말세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로 다시 인도하셨다. 그 옛 길은 언약의 사자가 1844년 10월 22일에 갑자기 임하실 성전을 세우신 사십육 년을 상징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일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저주를 발견했다. 이사야는 십사만 사천의 사역을 회복의 사역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 세대 동안 황폐하였던 성읍들을 중수하리라. 이사야 61:4.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한 일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이 성취할 일로 지목한 것이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하여 더 많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또한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 의해 예표되었다.

우리는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함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시려 하셨다. 에스라 9:9.

에스라가 수행한 일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뒤에 이루어졌으며, 요시야가 하던 성전 회복의 일을 대표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에 관해 밝힌 그 일이기도 하며,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일을 밝힌다.

내가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그 작은 책을 가져오라 하더라.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라; 네 배는 쓰게 되겠으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다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의 들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0:8-11:3.

이 구절에서 요한은 1840년 8월 11일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천사의 손에 있던 기별을 먹었으나, 1844년 10월 22일의 쓰라린 실망도 겪었던 밀러주의자들을 대표한다. 1844년의 쓰라린 실망 앞에 서서,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세 백성을 상징하여 1840년에서 1844년으로 상징되는 그 경험을 되풀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2001년 9월 11일과 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내다보게 된다고 들었다. 또 그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 천사가 내려와 요한계시록 10장의 역사가 '줄 위에 줄'로 반복될 때 온 세상이 빛을 받게 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세 백성이 다시 예언할 때 되풀이될 역사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요한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측량"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그가 1844년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10월 22일의 실망으로 그의 속이 쓰라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성전을 측량하되, 들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들은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며 그들이 1,260년 동안 그 들을 짓밟을 것임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 1,260년은 1798년에 끝났다. 요한은 1798년부터 측량을 시작하고, 그 이전의 1,260년, 곧 영적 성전과 영적 예루살렘이 짓밟히던 기간은 제외해야 했다. 그는 1844년의 실망 가운데 서 있었으므로, 1798년부터 1844년까지는 46년이다. 그 46년이 성전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을 대표하는 요한에게 1840년부터 1844년까지 했던 것처럼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때 천사가 강림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다시 예언하는 사역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요구되었고, 그 일은 '성전'으로 표상된 역사, 곧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되어 1844년의 큰 실망으로 끝난 역사를 가리키는 '옛 길들'을 조사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들', 곧 요한의 '사십육 년의 성전'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하자, 성전 곳곳에 흩어진 잔해 속에서 모세의 저주가 발견되었고, 장차 올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또한 요시아의 사역은 이사야에 의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네게서 난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일으킬 것이요,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거할 길을 복원하는 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58:12.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은 예레미야의 '옛 길'인 '거하며 살아갈 길들'을 회복해야 했다. 그들은 요시아와 에스라의 역사에서 일꾼들이 이루고 있던 것처럼,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워야 했다. 그들은 '줄 위에 줄'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46년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재림주의의 기초 역사를 단순히 '일으켜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세대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개혁 운동이 기초적 사업을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줄 위에 줄'이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말세의 기초들을 식별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들은 '틈'을 보수해야 했으며, 그 '틈'은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길을 여는, 그릇이나 성벽에서 처음으로 생긴 파손을 의미한다. 보수되어야 할 그 '틈'은 1863년의 반역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요시아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 밀러주의 역사를 측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틈"을 발견했다. 그들은 "옛

황폐한 곳들”을 재건하면서 밀러의 꿈의 보석들에 관한 진리를 밝혀냈다. 그들은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일곱 때”를 발견했으며, 레위기 26장의 진리를 회복하여 “이전의 황폐함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레위기 26장의 “첫째”와 “마지막” 황폐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는 1798년에, 다른 하나는 1844년에 끝났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이전의 황폐함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일이 곧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바로 그 “막대기”였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자신의 백성을 옛 길로 다시 인도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늦은 비의 기별을 찾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고 그 늦은 비의 기별은 셋째 화의 이슬람에 대한 기별이다. 마침내 그들이 1843년과 1850년의 선구자 도표로 대표되는 하박국의 두 거룩한 판을 발견했을 때, 그 기초에는 요한계시록 8장의 “세 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밀러주의 성전이 세워졌던 기초의 역사 속에서 둘째 화가 이미 마쳤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예언의 삼중 적용 원칙에 대한 이해가, 그들이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올 때 “안식과 새롭게 함”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 “안식과 새롭게 함”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두 증인으로 식별되고 입증되는, 셋째 화의 늦은 비의 기별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원수는 이 마지막 날들에 굳게 설 한 백성을 준비하는 일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의 꾀변은 이 시기의 위험과 의무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도록 꾸며졌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요한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그 빛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이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롯된 진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과거 경험을 빼앗아, 대신 거짓 과학을 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살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 가운데로 걸어가라.” 예레미야 6:16.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곧 말씀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의 연구와 계시를 통하여 우리 사업의 시작에 놓인 그 기초—를 허물어 뜯어내려 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오십 년 동안 이 기초 위에 건축해 왔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으며 이미 놓인 기초보다 더 견고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큰 기만이다. 이미 놓인 것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새로운 원칙들을 확립하려는 일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건축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가?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곧 무너지고 말았다.

“최초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에 맞서야 하지 않았는가? 그들도 거짓 이론들을 들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굳게 서야 하지 않았는가?” 고린도전서 3:1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에게 능력 있는 말씀들을 보내셨으니, 그 말씀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이끌어 내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현대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거룩한 불에 닿은 입술로 하나님의 증들은 그 기별을 선포하였다. 신적 발언은 선포된 진리의 참됨에 그 인을 쳤다.” Testimonies, volume 8, 296, 297.